



동아리 탐방

“거칠다고요? 그거 다 오해입니다”

재인하대학교 해병전우회 '하룡회'



한두희 하룡회 회장

인하대학교 비룡담 마당. 남자들만의 목직한 구호 소리가 캠퍼스에 메아리쳤다. 구호와 함께 한눈에도 '해병대 출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붉은 체육복은 입은 사람들이 구보를 하면서 나타났다.

이날은 인하대학교 해병전우회 동아리인 '하룡회' (회장 한두희, 26. 건축공학과)가 학교 내 연못인 '인경호'를 청소

하는 날. '하룡회'는 매년 상반기에 이 곳을 청소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동아리가 '인경호' 청소를 하려고 하자 캠퍼스 내 학생들은 신기한 듯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물 속으로 뛰어들자 여기저기서 탄성을 흘려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경호'의 물은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로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 사람들도 '빠질까봐 두려운' (?) 호수로 소문이 나있다.

한두희 회장은 "하룡회 자체가 학교 내에서 봉사단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꿈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인경호 정화활동 역시 동아리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청결한 학교의 모습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룡회'는 1년에 4회에 걸친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반기에 축제업무 협조, 인경호 정화활동을 하반기에 YB·OB 체육대회, 졸업생 환송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축제업무 협조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 등을 사전수범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회장은 "축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며 "특히 축제 물품의 운반 등이 축제 행사 중에 가장 바쁜 일"이라고 전했다.

'하룡회'는 지금까지 22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



하룡회 회원들이 정화활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해병대 출신과 같이 활동을 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지금은 각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돈독한 선후배 관계 '동아리 자랑거리' '봉사활동' 기본...모범적인 단체로 남아



구보를 통해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

대신 그들과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등을 열어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이 곳이 '금녀의 동아리'였던 것만은 아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회원을 받았지만 여성회원의 활동성(?) 때문에 중단했다.

한 회장은 "사람들은 이 곳 회원들이 거칠고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길 것을 우려하지만 단체 생활 속에서 배울 것들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해진 규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 결코 거칠게만 보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동아리에 대한 인식을 설명했다.

남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군복무가 정해지는 '해병대'는 전역을 한 후에도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해병대 출신의 단결력과 기수별로 정해지는 위계질서는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일반인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생소하게 다가올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 아고라에서는...

점점 취지에서 벗어나는 EBS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EBS를 들어온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EBS가 중고등강의를 꾸준히 이어오는 이유는 '사교육 없는 교육'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교육 하나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EBS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개편을 통해, 복잡하게 변화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려면 자신의 학습방에 강의 프로그램을 넣고 들어야만 하는 등, 모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를 본 따온 듯이 개편된 홈페이지의 EBS만의 개성도 잃은 채, 복잡한 구성으로 강의 하나를 들으려면 좋은 기본으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교육 없는 교육을 취지로 했던 EBS에, 유료강의가 등장했습니다. 전 설마하고 가격을 보니 모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와 다르게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공영방송 EBS가, 국민을 위한 EBS가, 반 국민 적인 가격으로 유료강의를 딱하니 내새운 것입니다. 미리보기로 보니 강의 품질도 무료강의보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같은 풍요롭지 못한 가정의 중고등시절자들은 마치 그 강의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품질 좋은 강의를 들으란 소리로 들립니다. 전에 슬쩍 봤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열악한 시청자들은 무료로 보여준다면 글에는 너무나 복잡한 어찌보면 귀찮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글도 귀찮을 바에야 그냥 돈주고 사라는 심보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정말 뻔뻔합니다. EBS. 무료라며 내세울 때는 언제고 슬쩍 유료강의를 팝업창에 따로 띄워놓는 광고며... 태그며, 속보이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점라인의 기말고사 대비 패키지를 봅시다. 5과목에 16만9천원입니다. 대국민의 방송 EBS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EBS가, 이렇게 지독한 가격으로 사교육 조장을 만들어가면서 환경어려운 학생들은 신경쓰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기말고사 대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홈페이지는 발전 의미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을 무료강의를 확대 심화하지 못 할 말 정 유료 강의를 신선히하고 무료강의는 제쳐둔다는 심보로 나오게 발전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질 않고 갖은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EBS. 유료강의를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아고라 "이현경" 님>

= 본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서는 독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합니다.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처: news@eduyonhap.com

www.eduyonhap.com

www.eduyonhap.com

www.eduyonhap.com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책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8년 3월 이전법률) 빠짐없이 찾아하여 반영하였다.
3. 영역별로 1장까지 적선편하여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각차별 확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안되는 사회복지법제 전문가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용 필드로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원격평생교육원 (Study.co.kr) 동영상 강의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 (06)2653-1996